

[종합·해설]

“신성한 국방 의무 펴줘... 사과해야”

역대 군 수뇌부들이 대통령의 발인과 관련, 대거 긴급회동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역대 군 수뇌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1일 발언에 대해 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7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일종의 ‘집단지행’을 한 것이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사무실에서 긴급회동하고 침착한 표정과 비장한 목소리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성토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발표한 강도 높은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 이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

역대 軍수뇌부, 노대통령 발언 비난 참여정부 군 수뇌부도 참석... ‘파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씌끼지 말고...”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참 어이가 없다”며 “70만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인 동시에 신성한 국토방위를 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리라

위중한 안보현실을 오도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은 성탄절과 연말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워 주고 주한미군 장병들을 초청 또는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며 “우리나라 현 실정은 매우 대조적이고 정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참여정부로부

터 임명장을 받았던 김중환 전 합참의장,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인식, 김명균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김중환 전 의장은 이날 행사참석에 대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노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히 군복무를 잘 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해 너무 심했다 해서 군 원로들이 많은 분노를 느낀 것 같다. 그런 원로들의 모임에 동참해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회동한 역대 군수뇌부들은 성명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조처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분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떠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오전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전직 국방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정계개편 주도 ‘선전포고’?

“할말 다할 것”...고건 ‘차별화 시도’ 써기 고 건 총리직, 역풍 맞을라 무대응 일관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작성한 고건 전 총리를 향해 ‘노기’를 표출하면서 “앞으로는 공격에 하나 하나 대응하고, 할 말 다할 생각”이라며 공개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지난 2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나는 그를 나쁘게 한 일이 없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나를 공격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 훨씬 더 나간 발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고 전 총리의 언행을 사실상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규정하고, “분화”는 표현까지 동원함으로써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요즘 대통령이 내내 북이 되어 있다. 저의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노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운을 폈다. “그렇게 해서 안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동네북처럼 이렇게 두드리면 저도 매우 섭섭하고 때로는 분하다”고 말해 고 전 총리를 겨냥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 전 총리측은

이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고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듣고 무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처럼 ‘평정심’을 지킨 것은 재차 갈등이 심화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고 전 총리는 27일 ‘군심(軍心)’ 위주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노 대통령의 민주평등 발언과 관련, 관심을 끌었다. 고 전 총리는 김포 해안에 위치한 해병대 초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복무 기간 단축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김대장은 사각을 이끈다는 노 대통령의 생각과 함께 갈등 양상을 보였다고 전 총리가 역대 군 수뇌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안해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조사 한나라 호남 두자릿수 지지율 정치권 파장

한 “당의 진정한 마음 전해진 것” 여 “민주 세력 재결집 요구한 것”

지난 1987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한나라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13.3%라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광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공표되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을 향한 한나라당의 진정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16.9%의 지지율로 한나라당에 비해 불과 3.6% 차이를 나타낸 열린우리당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세론이 호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느냐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당내 통합파 의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통합신당 창당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과 한나라당의 진심 어린 마음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표도 “몇십년만에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호남 지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 호남민들의 가슴에 전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세론이 호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느냐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당내 통합파 의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통합신당 창당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민주세력 재결집을 통해 다시 호남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여권이 최악의 분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지지율이 나온 것 같다”며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1.4%의 당 지지율을 기록, 호남 맹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권 창출에 나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장상 체제로 가닥

일부 의원 비대위 구성 요구... 논란 예고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보다는 정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구성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 및 대표단 연석회의를 갖고 당의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당 정당대회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취합,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낙연, 최인기, 손봉숙 의원 등은 지도체제 문제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향후 정계개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이상열 의원은 비대위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의 진로 등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당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헌·당규대로

정당대회 개최를 통해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의원들도 일단 당 지도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하다는 중도적 입장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분위기는 비대위 구성보다는 장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대회를 지르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비대위 구성에는 정당대회 개최 의견이 강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권환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도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추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상 대표와 현역의원들이 어떠한 타협점을 찾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이 평강공주 되어

대통령 격려 해 주자”

손학규 전 경기지사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6일 “노 대통령이 정치에서 초연하고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격려해 주자”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평강공주의 사랑과 격려가 없었다면 온달 장군이 그저 바보 온달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평강공주가 돼서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숨겨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해 주자”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또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강연에 언급,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내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화가 난 듯 했지만 민망스러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의 애정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광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해주시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p> <p>◆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이메일주소:광주일보사</p>	<p>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연493 연책 (2006하연492) 파산선고 파 산 자 이종남 (691226-*****) 주소 광주 북구 오저동 927-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p>	<p>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연502 연책 (2006하연501) 파산선고 파 산 자 박현석 (660703-*****) 주소 광주 북구 윤남동 208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p>	<p>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연607 연책 (2006하연620) 파산선고 파 산 자 박현숙 (630523-*****) 주소 여수시 여서동 245-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p>
---	---	---	---

<p>산행안내 12월 28일(목) ▲광주산악회 배부자 단상관동 12월28일(목) 08시 대인공경산 평지코스(8.5km) 08시30분 출발 14시10분 도착(2시간) 12월29일(금) 08시 08시30분 출발 14시10분 도착(2시간) 12월30일(토) ▲광주산악회 고선연화산(5.5km) 산행: 12월30일(토) 08시 08시30분 출발(1.5km) 14시10분 도착(1.5시간) 12월31일(일) ▲광주산악회 12월31일(일) 06시 15분 08시30분 출발(1.5km) 14시10분 도착(1.5시간) 12월31일(일) 08시 12월31일(일) 08시 12월31일(일) 16시 30분 08시 12월31일(일) 16시 30분 08시 12월31일(일) 16시 30분</p>	<p>12월 31일(일) ▲현충산악회 12월31일(일) 08시 08시30분 출발(1.5km) 14시10분 도착(1.5시간) 12월31일(일) 08시 08시30분 출발(1.5km) 14시10분 도착(1.5시간) 12월31일(일) 08시 08시30분 출발(1.5km) 14시10분 도착(1.5시간)</p>
--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1월 2일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1월 2일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

1위 합격률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2기]
• 개강일시 : 2006. 12. 28(목) 09:30
• 모집기간 : 2006. 12. 5~28일까지
• 수업기간 : 2006. 12. 28~2007. 4월(47일) 15주
• 수 강 료 : 210,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